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운영

전주시, 돌봄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시청·완산구청·전주교대 등 5곳에서

전주시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를 설치한 데 이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한다.

시는 26일 한옥마을주차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운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돌봄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급식소가 운영되는 지역은 △전주시청 △완산구청 △한옥마을주차장 △전주교대 △전북대학교 등 5개소로, 설치된 급식소는 동물단체와 지역캣맘, 관광안내소 직원, 대학생 동아리 회원들이 각각 관리하게 된다.

시는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운영을 통해 그동안 도시 곳곳에서 길고양이의 울음소리와 쓰레기봉투 및 시설물 훼손 등으로 야기됐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돌보는 캣맘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길고양

이 급식소를 확대하는 한편, 급식소를 관리하는 돌봄 자원봉사자(캣맘)와 연계해 각 길고양이 급식소를 찾는 고양이를 일시 포획해 권역별 TNR(중성화수술)을 실시하는 등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과 동물들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전담부서인 동물복지과를 신설하고,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소 운영과 개체수 조절 등을 실시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반려인과 시민대상으로 펫티켓 및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해 동물복지 의식을 향상시키고 생명존중 및 행복공존의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26일 한옥마을주차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운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돌봄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다

내달 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로, 총 1738필지(완산구 977필지, 덕진구 761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r.kr:447)'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송효철 기자

적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토제소재지 구청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회신할 계획이다.

전주시, 50+ 사회공헌일자리 수요처 모집

전주시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50+세대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수요처를 모집한다.

전주시평생학습관은 '50+ 어르신학교' 과정을 통해 양성된 전문강사들이 해당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처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50+ 사회공헌일자리 수요처 모집은 오는 9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5267)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익산서 화장품 절도범 검거

익산서 화장품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B씨는 지난 달 28일 익산 A모 화장품 매장에서 진열된 화장품의 보안턱 제거 시가 20만원 상당 화장품을 몰래 들고 나와 훔치는 등 이달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화장품 판매점 2개소에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법정신고 112 회재신고 119

한옥마을 품질인증제 도입

전주시, 내년부터... 평가요소는 여행객들이 결정

전주한옥마을을 여행객이 직접 한옥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주요 평가요소 정립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한옥마을품질인증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한옥마을품질인증제는 전주한옥마을의 관광품질 표준을 정립하고, 실제 여행객들의 평가 및 검증을 토대로 한옥마을 여행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 품격 있는 여행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한옥마을품질인증제가 기존 시행중인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제 등 타 인증제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 한옥마을 내 업소를 이

용한 여행객들의 만족·불만족요인을 충분히 조사하는 한편, 품질인증 평가 시 실제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무작위로 선정한 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여행객 실 이용 후기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요인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온라인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한옥마을 여행객의 경우 각각 청결과 서비스(숙박), 맛과 친절(음식)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이를 객관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여행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도 추진기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여행객들의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내년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지역현안 해결

전주시, 내달 15일까지 '요즘것들의 탐구생활' 100팀 모집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이하 사회혁신센터)는 2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전주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탐구하는 '2019 사회혁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가 청년팀을 공개 모집한다.

'요즘것들의 탐구생활'이라는 부제를 단 이번 공모사업은 역량 있는 전주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주시민 또는 전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사이 2인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모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0팀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정된 팀은 팀당 총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참여한 팀들은 별 탐구일기와 결과 공유회 등 필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전주 시민은 사회혁신센터 블로그에서 내려 받은 신청 양식을 작성해 메일(hinnovatorteam@gmail.com) 또는 사회혁신센터 사무실(완산구 태평3길 10, 3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오는 9월 4일 오후 7시에 커먼즈필드 전주(완산구 전주객사4길 73-7, 2층)에서 사업 안내와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관심 있는 전주시민은 구글독스 링크(bit.ly/2NkZkK4)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시민 모두가 즐기는 평생학습축제

전주시, 30일~내달 1일 전통문화전당서 한마당 개최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제14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한다.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평생학습한마당은 전주지역 130여개 평생학습기관과 단체, 동아리 등이 배움준, 나눔준, 함께준, 유류준에 참여해 그간 갖고 있던 평생학습 성과와 노하우를 뽐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개막 특별공연인 'one' △평생학습 기관·단체 홍보체험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나눔·실천 홍보체험관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홍보체험관 △성인문해학습자와 함께하는 문해한마당 △일반 체험과는 달리 유료로 진행되는 유료 홍보관 △평생학습 강사한마당 △50+플랫폼 한마당 △전주시 평생학습 학술포럼 △국민연금공공과 함께하는 작가탄생 출판기념회 △50+ 사람책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첫날인 30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는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와 전주시민이 참여하는 '2019년 전주시 평생학습 학술포럼'도 열린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one'이란 주제로 전주시민 모두가 학습을 통해 하나되는 몸짓임을 '하나의 길-기상의 춤-전주 하모니&소자의춤-매듭의 춤'을 퍼포

먼스 공연으로 펼쳐진다.

또 개막식 이후 무대 위에서는 전주지역 5개 고등학교의 청소년 밴드 동아리가 모여 청소년 락 페스티벌을 통해 꿈과 끼를 발산하게 된다.

이외에도 50+인생학교 동물들과 함께하는 체험 한마당, 평생학습 동아리와 함께하는 동아리 열전, 전주시 청소년 시설 연합과 함께하는 청소년동아리 연합 발표회, 20개 성인문해기관과 함께하는 성인문해학습자 작품전시 등의 활동도 전개된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국장은 "올해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의 주제인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에 걸맞게 평생학습 관련 모든 기관 및 단체, 동아리, 강사들로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홍보관 운영을 통해 찾아오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정인만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행사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마당 행사장을 배움로, 나눔로, 함께로, 꽃ים로 등 4개 임시 도로명과 130개의 부스에 각각 평생학습 관계자와 전주시민이 참여하는 '2019년 전주시 평생학습 학술포럼'도 열린다.

전주평생학습한마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5269)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